思考의 단편화 깨는 '相關關係學'

그레고리 베이츤의 '마음의 생태학'이란 무엇인가

서석봉
육군사관학교 교수 · 영문학

그레고리 베이츤(Gregory Bateson)의 저서 「마음의 생태학」(Steps to an Ecology of Mind)과 「정신과 자연」(Mind and Nature)이 국내에 번역, 소개되면서 최근 베이츤은 국내 학계의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가 다루고 있는 학문은 너무나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독자들이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그의 학문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요소가 있기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베이츤의 학문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마음의 생태체계'이며, 마음의 생태체계 없이는 오늘날 서구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의 생태체계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생태체계에 변화를 일으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베이츤이 말하는 마음의 세계란 공허한 세계이다.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란 '아이디어들'(ideas) 뿐이며,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생각, 사고, 이성, 관념, 정신, 태도, 가치관, 이론, 지식 등의 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현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실체는 아니다. 그것은 책상이나 나무와 같은 사물들이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마음이란 추상체로 관념화한 허상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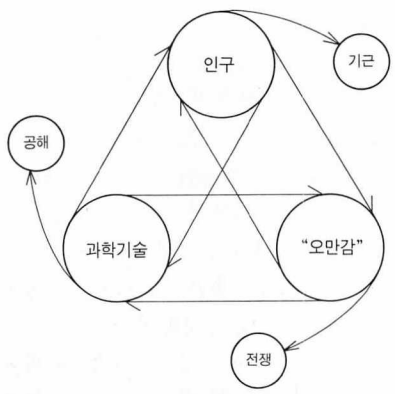
마음 속에는 사랑도, 미움도, 가정도, 국가도, 명예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에 관한 관념들이 있을 뿐이다. 시간이나 공간도 마음 속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란 추상적 관념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마음 속에는 온갖 종류의 추상적인 관념 또는 아이디어들이 집합해 있으며, 베이츤은 이와같은 '아이디어의 총합체'(aggregates of ideas)를 또한 '마음'이라고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츤이 말하는 마음엔 세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추상적 관념들을 수용하는 하나의 가상적 공간이기도 하며, 사물이나 현상을 관념화하는 하나의 주체이기도 하며, 우리들의 사고나 관념들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생태체계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생태학(ecology)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생태학이란 원래 생물학의 한 분야로 유기체들과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학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이 개념이 보편화되어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역동적인 상관관계들을 살펴보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생태학을 '상관관계학' 또는 '상관학'이라 이를 수도 있겠다.

한 체계의 '전체'를 보는 새로운 인식

마음의 변화, 또는 새로운 인식의 바탕이 되는 마음의 생태체계의 특성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마음의 구성요소인 관념들이 사물이나 자연현상과 뒤얽혀서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기적인 형태는 자연계의 생태체계와도 유사하며, 마음의 생태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피드백(feedback) 이론이나, 체계이론(systems theory),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인공두뇌학(cybernatics)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방법들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한가지 예로 베이츤이 「마음의 생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인구와 '오만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오만감'이란 산업혁명 이래 서구문명을 지배해 오고 있는 생각들이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나 자연환경은 착취나 이용의 대상물이며 우리와 적대관계라는 생각,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체나 사회 또는 국가라는 관념, 우리는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신념,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들이 모두 '오만감'의 범주에 속한다.

이와 같은 관념들은 산업혁명 이래 과학기술 발달의 모체가 되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의 기적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오만감을 더욱 부추기면서, 특히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구증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되며 인간의 오만감도 동시에 조장한다.

베이츤은 인구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인간의 오만감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원인들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도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흥미있는 점은 각 모퉁이에 있는 기근, 전쟁, 공해와 같은 현상이다. 이것은 기본요소들이 전체적인 체계를 도외시하고 독자적으로 작용할 때 조장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기근의 사태가 발생하며, 인간의 오만감이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전쟁을 유발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요컨대, 우리는 관념이나 자연 및 사회의 현상을 분해하여 단편적으로 보는 우리의 인식방법을 바꾸어서 어떠한 체계 전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그 체계의 균형적인 발전이며, 우리 삶의 토대인 환경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다. 베이츤이 일생을 통해 생태계의 유기체들을 연구한 결과 터득한 지혜란 "자신의 환경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생물은 자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러셀 등의 논리형태 개념 도입

마음의 생태체계의 현상이자 새로운 인식의 바탕이 되는 두번째 특성은, 마음의 구성요소인 관념 또는 생각들은 일정한 계층체계(hierarchy)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 우리의 생각들을 문자화한 문법체계를 살펴보자.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자신, 환경, 투쟁, 승리, 생물, 파괴 등과 같은 단편적인 개념들이다. 즉, 이것은 '단어'란 차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배열하여 "자신의 환경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생물은 자신을 파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어의 차원보다 한단계 높은 '문장'이 된다. 물론 이 문장 속에는 개별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문장은 개별적인 단어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이와 같은 계층체계를 더 확장한다면, 문장보다 더 높은 체계형태는 '문단'이며, 그 위의 형태들은 '책', '출판물', '문자', '인간의 사고' 등일 것이다.

그레고리 베이츤.

이와 같은 계층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베이츤은 화이트헤드(Whitehead)와 러셀(Rusell)이 사용한 '논리형태'(logical types)란 개념을 도입한다. 삼라만상은 계층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부류의 계층에 속하는 것이 하나의 논리형태에 속한다. 또한 상위계층에 속하는 논리형태는 더욱 더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위계층에 속해 있는 논리형태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하위계층의 논리형태는 상위계층의 논리형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리형태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다. 학습의 경우 자극 / 반응과 같은 것은 단순한 학습으로 기계적 논리형태에 속하는 학습이다. 이것은 동물이나 유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학습현상이다. 그러나 인식의 수준이 높은 成人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이보다 차원높은 학습형태인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learning to learn), 또는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learning about learning to learn)이다. 맥락(context)의 경우, 최하위 차원엔 단일한 하나의 맥락이 있으며, 다음 차원은 '맥락의 맥락'(context of the context), 그 다음은 '맥락의 맥락에

우리들은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역사나 생태계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베이츤의 '마음의 생태학'은 지적한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인식의 문제란 지식이 아닌 '지혜'의 문제이며, 인류와 환경이 일체감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 맥락'(context of the context)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의 생태계의 계층체계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베이츤이 제시하는 새로운 인식의 바탕이 되는 세번째 특성은 '의미'(meaning) 의 현상이다. 우리는 흔히 단어나 행동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베이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단어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맥락'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보다 더 상위체계에 속하는 포괄적인 맥락에서의 의미는 더 하위체계에 속하는 맥락에서의 의미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자신, 환경, 투쟁, 승리, 생물, 파괴 등의 단어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는 상당히 한정적이나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환경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생물은 자신을 파괴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의 구성요소인 개별적인 단어들의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문장 전체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어 그 의미는 인간행위에 대한 경고일 수도,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아니면 우리가 자못 도외시하기 쉬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일정한 계층체계 갖춘 '뒤얽힘'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맥락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 한 저명한 과학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한 결과 인류나 생태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한 과학이론을 수립했다고 하자. 그 과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명예'요, 어쩌면 평생의 생활보장을 받는 기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 전체나 생태계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 의미는 인류나 생태계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 학교수업 이외에 과외를 시키며,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벌을 주는 현상을 살펴보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애정'의 표시일 수도, '모성애'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자식의 입장에선 '억압' 또는 '독립심의 말살'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족애의 경직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사회나 국가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도덕이나 양심을 상실한 출세지향적인 풍조'와 연결될 수도 있다.

요컨대, 베이츤이 주장하는 마음의 변화란 새로운 인식의 문제이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관념들이 영원불변하는 진리요 실체인양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나 관념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들이며 시공간의 여건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식이나 관념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나 자연의 현상 또는 다른 지식이나 관념들과 서로 뒤얽혀 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얽힘의 배후에는 일정한 계층체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어떤 말이나 행동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새로운 인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의미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의 의미'인지가 문제시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을 통해 베이츤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들은 삼라만상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며 역사나 인류 전체 또는 생태계의 부분(parts)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들에게 무력감이나 왜소감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나, 우리들의 오만감을 수그러들게 하는 겸손함도 동시에 조장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식의 문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wisdom)의 문제이며, 인류와 환경이 일체감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작품구상

언어와 문자의 해체작업

「續·하늘에 걸린 얼굴」 외

吳仁文
소설가

나를 쪼개어 해체작업을 해나가다보면 거기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巨人이 있다. 언어와 문자이다. 이 언어와 문자의 실체와 본질을 파헤치는 소설을 써볼 작정이다.

저널리즘은 사실의 세계를 추적하고 소설은 허구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나는 이 상반된 두 세계 사이를 넘나들며 약 30년을 보냈다. 1961년에 나의 투고작이 「자유문학」지 신인상에 당선되어 소위 데뷔를 했고, 그 이후 잡지사 편집장을 거쳐 1964년부터 최근까지 줄곧 신문사에 몸담아 왔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에 몸담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신문의 보도기사나 잡지의 르뽀物로 충분히 표현가능한 것을 과연 소설로 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도저히 저널리즘이 흉내낼 수 없는, 소설문학으로서만 가능한 영역을 너는 개척해 나가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가공의 미래세계를 그린 장편소설 「하늘에 걸린 얼굴」을 써 제22회 한국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작품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신문사를 벗어난 뒤 요즘의 생각은 또 달라졌다. 소설이 궁극적으로 문학형식을 빌려 인간과 인생에 대한 탐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일진대 내가 가장 확실히 인식의 검증을 거친 내용을 작품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육신의 체험이 그것일 수는 없다. 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자신에 대한 파악부터 하는 게 순서이리라. 외부의 세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내가 그 세계에 무엇을 던져 주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나를 쪼개어 해체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거기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巨人이 있다. 言語와 文字이다. 나의 고막을 통해 뇌세포에 입력돼 있는 숱한 언어와 그 의미들. 그리고 출판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글자들.

그것의 실체와 본질과 문제점 따위를 파헤쳐 보는 소설을 쓰기 위해 나름대로 자료수집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놓았다. 이제는 술이 익듯 그것이 내속에서 완전히 발효되어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 단편이 될지 장편소설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다. 아마도 옴니버스 형식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상력에 주로 의지하는 미래소설 경향의 작품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아기를 중심으로 한 대하역사소설을 신문에 집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묘한 충동을 느낀다. 실재했던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저 넓은 우주와 같은 미래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맘껏 遊泳하고 싶은 것이다.

사르트르도 말하지 않았던가. 철학이 파산되는 곳에서 예술이 비롯된다고.

「하늘에 걸린 얼굴」의 속편이 될 장편도 틈틈히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독자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철저히 자연과학분야의 자료수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창작의 쾌감은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자기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게 아니던가.